

먹거리가 안전한 한옥마을 조성

전주시, 식품안전의 날 기념 캠페인... 식중독 3대 예방수칙 생활화 · 시민 안전의식 고취

전주시가 연간 11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전주한옥마을을 먹거리가 안전한 관광지로 지켜나가기로 했다. 시는 10일 전주한옥마을 내 경기전 광장에서 '제17회 식품안전의 날(5월 14일)' 기념 시민 및 관광객과 함께 식품안전 강화 캠페인을 전개했다. 식품안전의 날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4일로 정해졌으며, 매년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는 식품

안전주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시는 완산구·덕진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연계해 △손 씻기 교육 △채소모양 비누 만들기 △잼맛테스트 체험 부스를 운영,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이 쉽게 캠페인에 동참해 식품안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시에 따르면, 요즘과 같이 따뜻한 날씨에는 살모넬라, 병원성대장균, 캄필로박터,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

젠스, 비브리오패혈증 등과 같은 식중독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 손 씻기와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의 식중독 예방 수칙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식재료 세척 시 수도물사용하기 △계란은 5°C이하로 보관 △육류, 어패류, 채소류 칼·도마 구분사용 △어패류·육류 익혀먹기 △대형 용기에서 조리된 국 등은 신속제공하고, 식은 경우 잘 섞으

면서 재가열해 제공하기 등 식중독 종류에 따른 맞춤 예방수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생활습관이 요구된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매년 5월 14일이 식품안전의 날로 정해진 것은 건강유지를 위해서는 안전한 식품섭취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취지일 것"이라며 "365일 식품 안전관리를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되며,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신선한 식품을 안전하게 조리하여 섭취해달라"고 당부했다. /기동취재반



전주시자원봉사센터가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의 자원봉사자인 '지프지기' 봉사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프지기'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마련했어요

전주자봉센터, 국제영화제 기간 내 봉사자들 위한 쉼터 운영

사단법인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옥)는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의 자원봉사자인 '지프지기' 봉사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와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는 지난 3일부터 자원봉사자 쉼터 운영을 통해 자원봉사와 관련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홍보물과 다양한 간식거리, 쉼 공간을 마련하는 등 300명의 지프지기 봉사자들이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쉼터'는 2016년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시작으로 FIFA U-20월드컵, 전주국제영화제까지 계속적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며 행사장 내

쉼터운영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봉사자들이 쉼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향후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체육 행사시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와 봉사자들의 처우증진과 인센티브제공 등의 목적으로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쉼터에 방문한 봉사자는 "봉사활동 기간 동안 힘들 때마다 쉼터에 와서 맘편히 쉬 수 있어서 좋았다"며 "자원봉사센터의 배려가 봉사하는 동안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하며 앞으로 더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기동취재반

수두·유행성이하선염 예방수칙 준수해야

전주시보건소 당부

소아 예방접종으로 예방 기침예절 준수·손 씻기 등

전주시보건소(소장 장병호)가 최근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유행성 기를 맞아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이 0세~9세 이하 어린이에서 발생이 높고, 당분간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두의 경우, 미열로 시작해 온몸에 발진성 물집(수포)이 1주일 가량 발생하며, 물집성 병변에 직접 접촉하거나 호흡기 분비물의 공기전파를 통해 감염된다. 유행성이하선염은 무증상 감염이 20%를 차지하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귀밑 침샘(이하선)부위가 붓고 1주일가량 통증을 동반하며 기침 시 분비되는 침방울(비말)로 전파해 감염된다.

이에, 보건소는 시민들에게 표준 일정에 따라 소아 예방접종을 실시해 감염병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침예절 준수와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병호 전주시보건소장은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 전염기간동안 등원·등교를 중지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상황을 관할 보건소에 알려달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전주여행, 저렴한 가격으로 즐겨요

시, '전북투어패스 카드 1+1 판매 이벤트'

계절의 여왕인 5월을 맞아 오는 12일 국가대표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저렴한 가격에 실속 있는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전주시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앞에서 전북투어패스 카드 1장 구매시 1장을 더 증정하는 '전북투어패스 카드 1+1 판매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 행사는 봄 여행 성수기를 맞아 전주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알뜰하고 실속 있게 여행할 수 있는 전북투어패스를 홍보하고, 특히 고풍스런 전

주 한옥마을의 매력을 더해주는 한복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전북투어패스 한옥마을권(4,200원)을 구입하면 2명이 경기전(기본 입장료 3,000원 x 2명 = 6,000원)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또, 투어패스 소지자는 한복협회 회원업소에서 한복대여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복을 차려입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옛 정취를 가득 품은 경기전과 한옥마을 일대를 거니는 특별한 추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전북투어패스는 전라

북도 14개 시·군 주요관광지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전주에서는 경기전과 루이엘 박물관 등 유료시설의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동시에, 180여개소의 맛집과 숙박, 체험 등 특별한인기행점에서 각종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이번 1+1 판매 행사에 더해 한옥마을 한복협회가 한복대여 할인 혜택(50%)을 제공하기로 하여 누구나 부담 없이 한복을 입고 여행하면서 한복의 아름다움을 널리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투어패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공연, 체험 프로그램과 결합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시설 및 가맹점 관리에도 힘써 내실있는 투어패스를 만들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가막축제 '착한 축제'로

축제추진위 원탁회의

전주가막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이근)는 '2018전주가막축제 시민서포터즈 원탁회의'를 열고 착하고 성숙한 축제를 다짐했다고 10일 밝혔다. 추진위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성장지원센터에서 개최된 원탁회의의 시민서포터즈는 최근 2주간 SNS를 통해 자발적 참여자를 대상으로 모집했다. 질적 성장만이 아닌 올 끝은 문화 축제로서의 성숙을 위해 보다 많은 의견수렴과 직접적인 시민 참여를 위해 관광전문가, 학자, 지역 내 청년 기획자, 가막지기로 활동했던 대학생 등으로 구성했다.



이 자리에서 이근 위원장은 "가막 축제는 골목상권보호로 시작되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가막이 지역고유의 음식문화로 자리하게 되기까지 함께 해준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보답하는 의미의 축제보다 많은 지역민의 의견수렴과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경제적인 효과와 사회적인 가치

를 생성할 수 있는 착한축제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원탁회의에서는 축제의 제반사항에 대한 의견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았고 지속적인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시민서포터즈 원탁회의를 월 2회 진행해 시민과 축제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다짐했다. /기동취재반

재판 받던 20대 피고인 법정구속되자 '도주'

보안관리대원 손목 꺾고 달아나

모욕 등 혐의로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20대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오후 2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모욕과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A(21·건설노동자)씨가 여성 보안관리대원의 손목을 꺾어 넘어뜨린 뒤 달아났다.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될 상황이 었다.

그는 구속을 집행하려던 교도관들이 다가온 순간 법정 후문을 열고 도망친 뒤 정문을 통해 법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폭행 등 전과 4범인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새벽 2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딩 화단에서 술에 취해 행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현재 호텔과 모텔, 고속버스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A씨를 추적 중이다. /기동취재반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